

SK, 대기오염 방지시설 RTO 가동

축열식 소각로로 악취 방지 ... 카본슬러리 세정탑 전처리 설비 적용

SK 울산 킴플렉스가 1월16일 오후 제1 종합폐수처리장 악취 방지시설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준공된 악취 방지시설은 축열식 소각로 RTO(Regenerative Thermal Oxidizer)로 총 27억원이 투입됐으며, 2년 동안의 기술연구 및 공사과정을 거쳤다.

RTO는 3개의 축열층과 연소로로 구성된 축열식 소각설비로 악취물질을 처리해 무해·무취한 이산화탄소(CO₂)와 수증기(H₂O) 상태로 최종 배출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다.

국내 정유기업 최초로 도입된 SK의 RTO는 99% 이상의 높은 처리효율과 함께 폭발사고 방지 및 사고 발생시 역화방지를 위해 전처리 설비로 카본슬러리 세정탑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는 등 국내외 RTO 중 가장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SK 방엽성 생산부문장은 “악취 방지시설 준공으로 시민 체감환경 및 지역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총 47억원을 들여 제 2종합폐수처리장 등 공장 내 전폐수처리장의 악취 방지시설을 200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4/01/20>